

# 실용외교 첫발로 한미 동맹·한미일 협력 강화... 對美 안보·통상 후속 협상은 과제

## 이 대통령 순방 결산

이재명 대통령의 3박6일 일본·미국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미일 정상과 한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으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다시 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공을 들이는 미국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을 먼저 찾아 한일 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는 어느 정도 수습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뵈기 전에 일본과 미리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며 "일본에 가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장애요소가 제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는 것이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안정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시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3박6일 미·일 연쇄 정상회담... 취임 2개월만 양자 외교 시동

방미 앞서 방일... 李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李, '페이스메이커'로 트럼프 칭찬... 첫 정상회담 화기애애한 분위기

구체적 합의문은 없어... 관세협상 후속·방위비 등 '디테일'은 숙제

한일 미래에 '방점'...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직접 언급 안해

한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으면 미국의 주도 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이어 방문하는 모양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 화기애애한 분위기... 구체적 안보·통상 후속 협상은 숙제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은 무난하게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미 정상과의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언급하며 신뢰를 쌓는데 집중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하며 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화답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등 다른 분야로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화답 직후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함께 큰 진전을 이뤄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다만 공동선언문은 나오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

등 민감한 현안은 일단 후속 실무 논의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후속 청구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문이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은 과제로 남았다.

대미 투자 규모는 큰 틀에서 정해졌으나 펀드 운용 방식을 두고 한미 통상당국 간 이견이 노출됐다. 미국은 사실상 '직접 투자'라고 했지만,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인 '재투자' 개념이라고 본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선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일단 막아냈다고 했지만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미국산 사과 등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시대의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한미 간)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말한 관점에서,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하도록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진행했다"며 "더 진전된 논의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李-이시바,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맞손'...과거사 문제 직접 언급 안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하며 정상 간 '서툰외교'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했다. 한일 정상이 문서 형태로 합의된 공동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한일 정상이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건 남북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남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한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와 미래 의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사회문제 협력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

다. 과거사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강제징용 등에 대한 직접 사과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한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할지에 대한 기본적 접근에 주목점을 뒀다"고 밝혔다. /뉴시스

## 與,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 어려워"...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도

민주 특검특위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강경 성향 의원들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또 강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3대 특검 총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특검은)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 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을 향해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행안부와 연계해서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 적극 동조한 지자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

이라고 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점을 감안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운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한덕수를 기각하면, 부총리 최상목 이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러니 국민의 분노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요구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뉴시스

## 장동혁-국민의힘 중진의원 회동... "분열·갈등 극복해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당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와 중진 의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극복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중진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당이 승리하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보

력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장 대표와 전당대회 경선을 함께 치렀던 조경태 의원도 회의에 참석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저 역시 전체 틀에서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이 그대로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당을 통합하고 단합해 나갈지, 대외 관계에서 분열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간 장 대표가 단일대오를 위해 찬탄(탄핵 찬성)파에 대한 결단을 시사했던 것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과 관련한 이야기도 일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지도부 회동과 관련 "(회동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서 공식 제안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일정 보이콧을 두고는 "여당의 일방 폭주에 대해 다들 반대하고, 대화와 협치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9월 정기회에 저희가 어떤 자세로 임할지는 방향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신임 지도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가장 급한 게 사무총장 인선인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주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게 당 대표 생각"이라고 했다. /뉴시스



**상사와 랑 머슴!**  
**상사랑 짝go!**

# 제25회 영광불갑산 신시대축제

2025. 9. 26. (금) ~ 10. 5. (일)

**영광 불갑산 관광지 일원**

**주요 프로그램**

- 상사와 in Love 콘서트 (신요법) 9. 26(금) 오후7시
- '그럴때 있으시죠?' (김제동) 10. 4(토) 오후6시
- 상사와 대학가요제
- 상사와 꽃길걷기
- 상사와 달빛야(夜)행
- 브레드 이발소 9. 27(토) 오전11시, 오후3시
- 도래미 프렌즈 10. 4(토) 오전11시, 오후3시



주최/주관 :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 영광군의회, 영광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신협중앙회, 농림영광군지부, 영광축협, 영광군민회